한국간호과학회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정신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0년 9월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19, No. 3, 278-287, September, 2010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체계적 핵심역량지원 모형 구축

박현숙[1] · 정선영[2]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1], 박사과정생[2]

Development of a Multisystem Core Competency Support Model to Prevent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Park, Hyun Sook[1] · Jung, Sun Young[2]

[1]Professor, [2]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In this study, the fitness of a path model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resilience,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was examined. The aim of the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about preven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by developing and examining a multisystem core competency support model.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98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and AMOS programs. **Result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resilience, self-esteem, and depression showed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whil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resilience, and self-esteem showed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The modified path model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was shown to be correct.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can be decreased by increas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resilience, and self-esteem and reducing depres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a need to design a core competency reinforcement program that emphasizes increases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resilience, and self-esteem and reduction of depression in order to decrease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Key Words: Adolescent, Suicide, Competen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히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자살의 문제는 청소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6년 한 해 자살로 인한 청소년의 사망은 15~19세 청소년의 사인 중 2위, 20~24세 청소년의 사인 중 1위에 해당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한국문화 특유의 사회적 가치의 획일성, 부패와 불신 풍조, 조급함, 성인문화의 폭력성, 권위주의적 경향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청소년 자살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Chun, 2001),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과 관련된 위기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살사고는 자살시도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의식중에 잠복되어 성장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Kim, H. S., 2006),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연령층의 자살 문제와 밀접히 연관

주요어: 청소년, 자살, 역량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Hyun Soo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21-4106, E-mail: parkhs@cu.ac.kr

- 본 연구는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KRF-2007-313-E0057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 by Korean Government (KRF-2007-313-E00579).
투고일 2010년 7월 16일 / 수정일 2010년 9월 3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3일

될 수 있으므로(Seo, 2006),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체계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Kim, H. S., 2006). Henggeler (1982)의 가족-생태 체계이론(family-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체계적 접근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은 여러 개의 체계와 하위체계에 속해 있고, 자신이 속한 체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Henggeler, 1982). 이러한 체계 중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체계는 가족체계이며, 이외에 친구집단, 학교 및 이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체계가 있다(Seo, 2006). 따라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체계적 관점과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Kim, H. S., 2006; Seo, 2006)를 토대로 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다루어진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 유형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살사고와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발견(Seo, 2006), 청소년 자살사고와 관련된 모형 구축(Sohn, 2009), 청소년 자살사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 검정(Doo, 2004) 등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 개인체계 요인을 주요 관점으로 보았고, 가족체계 관련요인과 학교체계 관련요인의 일부분만 다루어진 실정이며, 학부모와 교사 및 또래의 지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학교 차원의 청소년의 자살예방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중심의 전달교육으로는 역부족이며(MacDonald, 2004), 지식, 기술 및 태도 개선을 위한 핵심역량 중심 접근(core competencies-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 핵심역량이란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Stewart et al., 2000). 이 개념은 근래까지는 기업현장에서 각광을 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맥락을 벗어나 간호교육현장과 간호실무에서도 활용되었으며, 교육과 간호제공자뿐만 아니라 간호수혜자에게도 활용(Schoeder & Pridham, 2005)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역량은 자기개념, 동기, 특질, 기술 및 지식의 복합체이며, 교육을 통해 학습될 수 있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통용될 수 있으며,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Stewart et al., 2000). 역량의 요소들은 발달단계, 상황에 따라 중요한 정도와 요구되는 수준이나 범위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Stewart et al., 2000), 청소년, 학부모 및 교사와 관련된 차별화된 역량이 탐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별 관련 요인 중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먼저 자살예방을 위한 가족체계 관련 핵심역량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역량의 구성요소 중 기술에 해당된다(Rider & Keefer, 2006; Stewart et al., 2000). 최근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연구(Chun, 2001; Park & Koo, 2009)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청소년이 원활한 청소년에 비해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자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친구 간 갈등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Choi & Yoo, 2007).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문제 상황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체계에 속한 사람들이 향상되어야 할 능력이며, 특히 청소년과 가족에게 지원해야 할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체계 관련 핵심역량으로 학교적응유연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역량의 구성요소 중 특질 및 기술에 포함된다(Stewart et al., 2000). 학교적응유연성이란 위기상황에서도 학업성취가 높고, 학교생활에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친구와 교사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학교 내 규범을 성실하게 따르는 능력을 의미한다(Park, 2010). 이러한 학교적응유연성은 자살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살의 전조증상이 될 수 있는 우울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Park, 2010). 높은 학교적응유연성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본인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또래와 교사가 자살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Martin, Richardson, Bergen, Roeger, & Allison, 2005; Moor et al., 2005)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개인체계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주요 예측요인이며(Park, 2007), 역량의 구성요소 중 자기개념의 일부에 해당된다(Stewart et al., 2000). 이들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및 자아존중감은 Kim과 Lee (2009)의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 자살생각 관련 보호요인에 해당되며, 효과크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역량의 구성요소를 갖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Stewart et al., 2000). 또한 이들 변인은 우울을 매개로 하거나 자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인에 해당된다(Chun, 2001; Park, 2007; Park, 2010; Park & Koo, 2009).

지금까지의 청소년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부분적으로 다루었거나 위험요인과 함께 다루었고, 자살

예방을 위한 핵심역량의 맥락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다. 자살예방을 위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역량이 강화될 때, 스트레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슬기롭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핵심역량 및 경로를 설명하고자 경로모형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핵심역량이 청소년기의 부적응 행동인 자살에 어떻게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아울러 각 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체계에 필요한 핵심역량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체계적 핵심역량지원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정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핵심역량의 효과를 검정한다.
-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체계적 핵심역량지원 모형을 제시한다.

3.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경로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역량으로써의 조건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Henggeler (1982)의 관점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Henggeler (1982)의 다체계적 관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 특성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와 친구집단, 학교, 이웃 등의 지역사회체계를 포함하는 관점이다. 가족체계 관련 역량에 해당하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Choi & Yoo, 2007), 개인의 정서에 직접 · 간접적으로 영향 주어 우울감을 감소시키며(Chun, 2001; Oh, Park, & Choi, 2008), 자살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h, Park, & Choi, 2008; Park & Koo, 2009). 친구, 교사, 학교 등의 지역사회체계 관련 역량에 해당하는 학교적응유연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Cho, 2002), 자살위기 이전의 우울 정서를 완화시킴으로써, 자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Park, 2010). 또한 청소년 개인체계 역량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우울 정서를 감소시켜 자살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un, 2001; Park, 2007; Seo,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기틀과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적응유연성을 외생변수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사고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써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핵심역량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정하는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지역과 K지역에 소재한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생 398명이다. 대상자는 1개의 인문계 남자, 1개의 인문계 여자, 2개의 인문계 남녀공학, 1개의 실업계 남자와 1개의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경로분석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가 측정변수 당 15명 이상을 권장하며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 2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Kim, G. S., 2006)을 기초로 하여 405명의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 한 것을 제외한 398명(98.2%)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학급담임 및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교과목 담당 교수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학생

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일반적 특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사고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문항을 구성하고, 청소년 3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결과 응답 용이성은 양호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이 애매한 어휘는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1)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Olson 등(1982)이 개발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Min (1991)이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척도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임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Min (199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93이었다.

2) 학교적응유연성

학교적응유연성은 Kim (2008)이 개발한 학교적응유연성 척도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본 연구대상자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학교 애착, 친구와 교사 지지를 포함한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학업성취정도, 교사의 지시 준수, 학교규범 준수와 같은 학교규범 준수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74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Rogenberg (1965)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적합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8이었다.

4) 우울

우울은 Radloff (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Chon과 Lee (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위해 개발되었고, 청소년들에게 사용하기 적합하며, 우울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정신운동지연, 식욕상실, 수면장애 등과 같은 우울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Radloff, 1977).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n과 Lee (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9이었다.

5) 자살사고

자살사고는 Beck, Steer와 Ranieri (1988)가 개발한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B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Lee와 Kwon (2009)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BSI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기에 유용하며, 적극적인 자살생각과 자살에 대한 양가적 태도로 구성되었다. 총 19문항이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Kwon (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4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7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WIN 15.0 프로그램과 Amos 7.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핵심역량 지원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부합지수로 x^2,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구하였으며,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및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GFI)를 구하였고, 증분부합지수로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와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구하였다.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223명(56.0%), 실업계 고등학생이 175명(44.0%)이었고, 1학년이 126명(31.7%), 2학년이 131명(32.9%), 3학년이 141명(35.4%)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190명(47.7%), 여학생이 208명(52.3%)이었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207명(52.0%)이었고, 없는 학생이 191명(48.0%)이었다. 성적은 중위에 해당되는 학생이 212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하위 1/3에 해당되는 학생이 104명(26.1%), 상위 1/3에 해당되는 학생이이 82명(20.6%) 순이었고, 경제상태는 '중하'가 197명(49.5%)로 가장 많았고, '하'가 107명(26.9%), '상중'이 73명(18.3%), '상'이 2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2. 경로모형 검정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을 검정하기 이전에 변인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사고의 왜도(skeweness)와 첨도(kurtosis)를 검정한 결과 절대값 2를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 가정 하에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모델적합도를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사고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적 경로모형의 검정

1)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x^2 값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x^2 값은 55.34 ($p<.001$)로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대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x^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서 소표본인 경우에는 부적절한 모형도 채택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본의 경우에는 적절한 모형도 기각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x^2 test만으로 모델의 적합도를 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적합지수를 검정한 결과, RMSEA는 .3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GFI는 .95, AGFI는 .93, NFI는 .93, CFI는 .93으로 모형의 조건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398)

Variabl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resilience	Self-esteem	Depression	M±SD	Skewness	Kurtosis
	r (*p*)	r (*p*)	r (*p*)	r (*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1				65.3±12.24	0.14	-0.06
School resilience	.36 (<.001)	1			39.1±6.50	-0.36	0.90
Self-esteem	.43 (<.001)	.44 (<.001)	1		35.2±7.06	-0.36	-0.26
Depression	-.25 (<.001)	-.45 (<.001)	-.64 (<.001)	1	37.5±10.72	0.85	0.61
Suicidal ideation	-.41 (<.001)	-.45 (<.001)	-.63 (<.001)	.69 (<.001)	32.8±16.16	1.23	0.61

만족하였다(Table 2).

2)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의 값을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path diagram)을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 추정치에서 자살사고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β=-.12, p=.010), 학교적응유연성(β=-.26, p=.004), 자아존중감(β=-.61, p<.001) 및 우울(β=.66, p<.001)이었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β=.18, p<.001)과 학교적응유연성(β=.35, p<.001)이었으며, 우울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학교적응유연성(β=-.32, p<.001)과 자아존중감(β=-.80, p<.001)이었다.

4. 가설적 모형의 수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을 AMOS에서 제시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을 실시하였다. 수정과정에서는 가설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 우울의 경로를 제거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 학교적응유연성의 상관관계 경로를 추가하였다.

1)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과 동일하게 x^2 값, RMSEA, GFI, AGFI, NFI 및 CFI의 적합도 지수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x^2 값은 3.48 (p=.062)로 독립모형으로써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었다. RMSEA는 .08로써 좋은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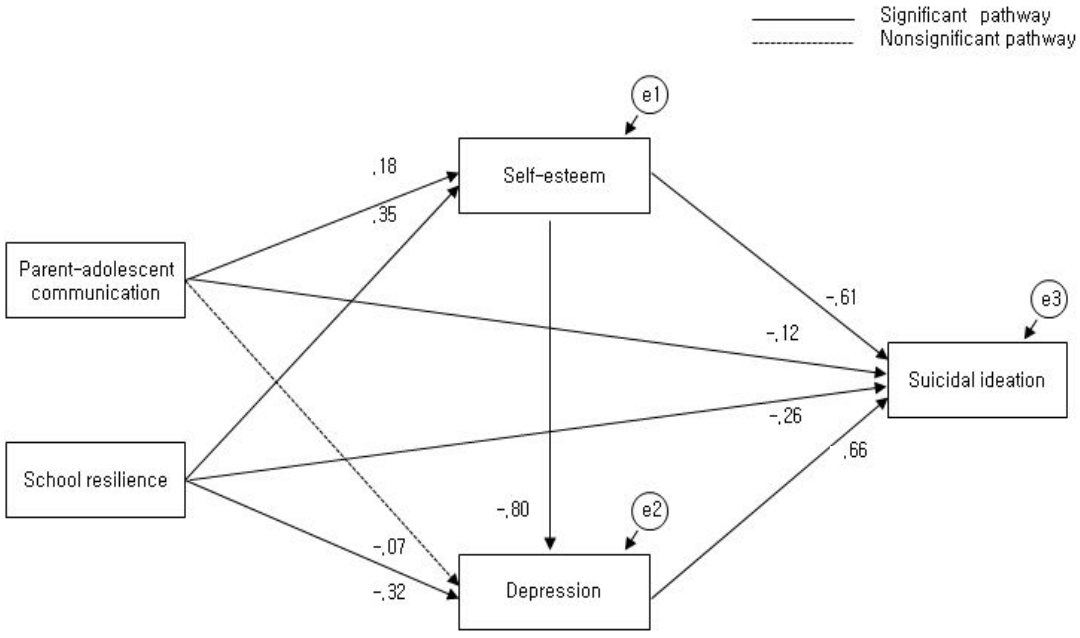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path model.

Table 2. Goodness for Fit Tests (N=398)

Goodness	x^2	p	RMSEA	GFI	AGFI	NFI	CFI
Hypothetical path model	55.31	<.001	.37	.95	.93	.93	.93
Modified path model	3.48	.062	.08	.99	.95	.99	.99

도를 나타내는 값을 보였고, GFI는 .99, AGFI는 .95, NFI는 .99, CFI는 .99로 최적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을 보였다.

2)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정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 경로 추정치의 값을 중심으로 수정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수정 모형의 경로 추정치에서 자살사고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β=-.12, p=.015), 학교적응유연성(β=-.26, p=.008), 자아존중감(β=-.61, p<.001) 및 우울(β=.66, p<.001)이었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β=.18, p<.001)과 학교적응유연성(β=.35, p<.001)이었고, 우울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학교적응유연성(β=-.34, p<.001)과 자아존중감(β=-.84, p<.001)이었다.

3) 수정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각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및 우울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자살사고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었고, 다음으로 학교적응유연성, 우울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순이었다. 이들 변수가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설명량은 55%이었다. 이들 중 부모-자녀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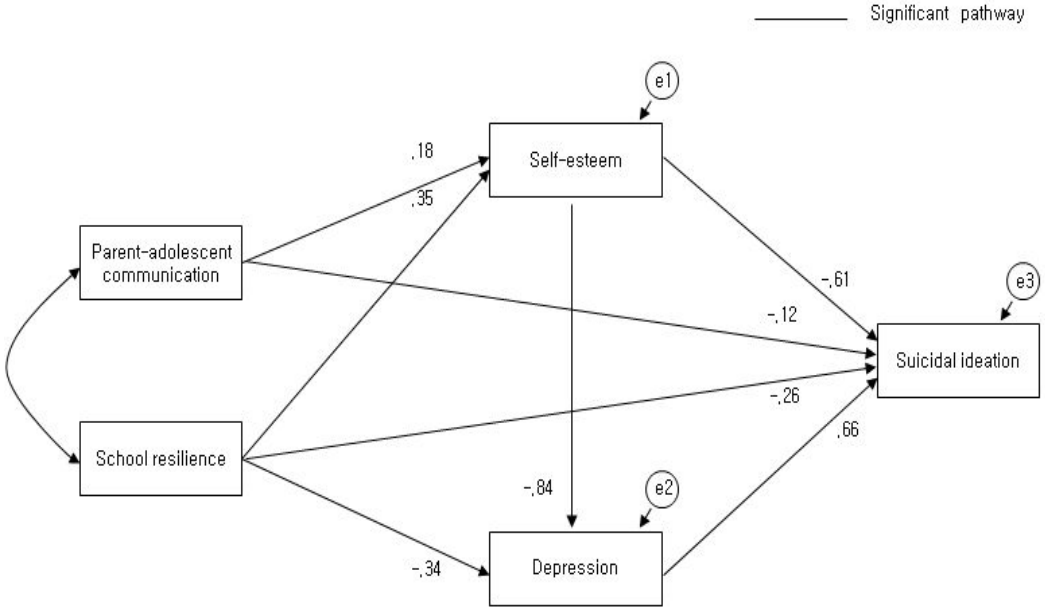

Figure 2. Modified path model.

Table 3.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Hypothetical Path Model (N=398)

Variables	Categori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R^2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0.18 (<.001)		0.18 (<.001)	.28
	School resilience	0.35 (<.001)		0.35 (<.001)	
Depressi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0.15 (<.001)	-0.15 (<.001)	.45
	School resilience	-0.34 (<.001)	-0.29 (<.001)	-0.64 (<.001)	
	Self-esteem	-0.84 (<.001)		-0.84 (<.001)	
Suicidal ideati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0.12 (.015)	-0.21 (<.001)	-0.33 (<.001)	.55
	School resilience	-0.26 (.008)	-0.64 (<.001)	-0.90 (<.001)	
	Self-esteem	-0.61 (<.001)	-0.55 (<.001)	-1.16 (<.001)	
	Depression	0.66 (<.001)		0.66 (<.001)	

사소통과 학교적응유연성은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높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학교적응유연성이었다.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우울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었지만 Sobel test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핵심역량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정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수정모형에서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및 우울이었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사고가 낮았다. 먼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살사고가 낮은 것은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살사고의 완충역할을 한다는 Park과 Koo (2009)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자살사고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높은 것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Chun (200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은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자살사고에의 효과크기가 높은 변인으로 나타난 Kim과 Lee (2009)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자살사고에 대한 학교적응유연성이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높은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는 Cho (200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Park (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접경로보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한 간접경로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증진과 우울 감소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은 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Park, 2007) 결과와 일관된다. 우울이 낮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은 것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우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Park, 2007)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같은 변인들은 청소년 자살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확인되었고, 최종 경로모형의 예측변인들이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정도가 55.3%로 나타나 예측력이 높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및 자아존중감 등의 핵심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이었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Cho, 2002; Choi & Yoo, 2007; Park, 2010) 결과와 일관된다. 그러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개입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촉진하고,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학교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이었다. 즉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Chun, 2001; Park, 2010) 결과와 일관된다. 그러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우울에 대해 직접효과가 없었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Chun (2001)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므

로, 외생변수를 고려하여 두 변인의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유연성 및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우울을 통해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통한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정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핵심역량지원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도입되리라 사료된다. 먼저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개인체계 핵심역량인 자아존중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족체계 관련 핵심역량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기술을 돕기 위해 청소년 개인의 자기주장훈련 및 의사소통법에 대한 교육과 적용이 필요뿐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마음읽기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체계 관련 핵심역량인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동료를 대상으로 인간관계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다체계적 핵심역량지원 모형 구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중등학생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회의 측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청소년기 초반부터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자살사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른 핵심역량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핵심역량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검정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다체계적 핵심역량지원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 가족체계 관련 핵심역량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지역사회체계 관련 핵심역량인 학교적응유연성이 청소년 자살사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개인체계 핵심역량인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 주고, 개인 정서인 우울에 직 · 간접 영향을 주어 자살사고에 간접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 핵심역량인 자아존중감도 자살사고에 직 ·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핵심역량 지원모형이 간명하고 적절한 모형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기초로 자살예방 접근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검정된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중심의 비용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Beck, A. T., Streer, R. A., & Ranieri, W. F. (1988). Scale for suicide ide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elf-report ver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499-505.

Cho, H. J.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among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Choi, Y. J., & Yoo, G. S. (2007).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on satisfaction with peer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3), 1-17.

Chon, K. K., & L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 65-76.

Chun, Y. J. (2001). Path model for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dicated by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1-17.

Doo, J. Y. (2004). *The effects of group counselling program for mental health on the Juvenile's suicide factors.* Unpublished mater's thesis, Youngnam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Gyeongsan.

Henggeler, S. W. (1982). The family-ecological system theory. In S. W. Henggeler (Ed.), *Delinquency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family-ecological systems approach.* Littleton, MA: John Wright.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9-129.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51-661.

Kim, E. K. (2008).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the school resilience of North Korean immigrant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im, G. S. (2006).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Nannarae Publishing.

Kim, H. S. (2006). The current trend of suicide and its prevention in life stag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elderly and youth suicid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4*, 271-29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07.* Daejeon: Author.

Lee, H. S., & Kwon, J. H. (2009). Validation for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wi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155-1172.

MacDonald, M. G. (2004). Teacher's knowledge of facts and myths about suicide. *Psychological Reports, 95*, 651-656.

Martin, G., Richardson, A. S., Bergen, H. A., Roeger, L., & Allison, S. (2005).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s indicators of need for assessment of adolescent suicide risk: Implications for teachers. *Journal of Adolescence, 28*, 75-87.

Min, H. Y.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delinquent's perception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Moor, S., Ann, M., Hester, M., Elisabeth, W. J., Robert, E., Robert, W., et al. (2005). Improving the recognition of depression in adolescence: Can we teach the teachers? *Journal of Adolescence, 30*, 81-95.

Oh, H. A., Park, Y. R., & Choi, M. H. (2008).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Heath Nursing, 14*(1), 35-43.

Olson, D. H, Ma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82).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ark, H. S. (2007).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835-843.

Park, H. S., & Koo, H. Y. (2009). The buffer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1), 87-94.

Park, J. Y. (2010). *Adolescent suicidal crisis and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new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ider, E. A., & Keefer, C. H. (2006). Communication skills competencies. *Medical Education, 40*, 624-629.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oeder, M., & Pridham, K. (2005). Development of relationship competencies through guided participation for mothers of preterm infant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5*(3), 358-368.

Seo, H. S. (2006).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Sohn, J. N. (2009). A structural model of impulsive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4), 418-430.

Stewart, F., O'Halloran, C., Barton, F. R., Singleton, S. F., Harrigan, P., & Spencer, E. F. (2000). Clarifying the concepts of confidence and competence to produce appropriate self-evaluation measurement scale. *Medical Education, 34*, 903-909.